배드민턴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한 '요넥스 레전드비전 월드투어'

전설들과 한판 승부…꿈나무들 꿈이 커진다

'셔틀콕 황제' 린단과 일대일 기회
이용대·유연성 조와 복식 맞대결
클리닉·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도
유소년 발전 위해 수익 전액 기부



한 자리에 모인 배드민턴 전설들. (왼쪽부터) 피터 게이드·타우픽 히다얏·린단·이용대.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지난 1일, 전 세계 배드민턴 레전드 스타들이 모인 '2018 요넥스 레전드비전 월드투어'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인 이용대(요넥스)를 비롯해 린단(중국), 리총웨이(말레이시아), 타우픽 히다얏(인도네시아), 피터 게이드(덴마크) 등 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인 레전드비전 월드투어는 중국, 인도네시아, 덴마크,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열리다가 올해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개최됐다.

2015년 시작된 레전드비전은 배드민턴의 재미를 세계에 알리고 유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이벤트로 "배드민턴을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자"는 레전드들의 열정이 담겨 있다. 이용대는 "레전드비전은 배드민턴을 보다 가까이에서 재밌게 보내는 시간이고, 평소에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레전드들이 보답하는 시간이다"라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올해 레전드비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된 리총웨이를 제외한 4명의 스타들이 참가했다.

레전드들은 행사 전날인 11월 30일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유소년 선수들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초청해 클리닉, 토크쇼 등을 진행하며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꿈같은 시간을 선물했다.

'배드민턴 황제'로 불리는 린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유소년 인재 양성이다"라며 꿈나무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행사는 레전드들의 화려한 플레이로 채워졌다. 하태권 요넥스 감독과 이용대의 전·현직 파트너인 유연성(수원시청), 김기정(삼성전기)이 팀 코리아로 함께해 팬들을 열광시켰다. 7명의 선수들은 5개의 게임을 펼치며 체육관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30여 차례 우승을 합작한 전설의 남자복식 듀오인 이용대-유연성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며 팬들을 추억에 젖게 했다.

유소년들을 위한 날이었던 만큼 뜻깊은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남자단식 기대주로 꼽히는 김태관(부산동고)은 린단과 단식 맞대결을 펼치는 기회를 얻었다. 올해 남원주 초등학교를 전국 최강으로 올려놓은 김민지·김민서 쌍둥이 자매는 이용대·유연성과 혼합복식 경기를 펼쳤다.

요넥스는 이날 1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했으며 일반 동호인들을 위한 '스팁어택 챌린지' 이벤트도 열어 유소년 선수들과 팬들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이번 레전드비전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배드민턴 유소년 발전을 위해 전액 기부됐다.

한편 요넥스는 지난해부터 '코리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경상남도 밀양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역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건엽 대학생 명예기자 dkdldi202@naver.com

셔틀콕 신동 쌍둥이 자매 "이용대-유연성 선수처럼"


김민지-김민선 자매

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요넥스 레전드비전 행사는 배드민턴 유망주들에게 레전드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전 세계를 돌며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백 여 명의 배드민턴 유망주가 초대되어 가까이에서 이용대, 린단 등 배드민턴 레전드들의 플레이를 눈으로 지켜봤다.

그중 이용대, 유연성과 한 조를 이뤄 맞대결을 펼친 한국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있었다. 바로 남원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지-김민선(13·6학년) 쌍둥이 자매가 그 주인공이었다. 두 자매는 SBS 영재발굴단 방송을 통해 배드민턴 신동으로 소개되며 배드민턴 팬들에게 알려졌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펼친 쌍둥이 자매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언니 김민지 양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니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하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실력 차이를 느꼈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용대·유연성 선수 같은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동생 김민선 양은 "말로만 들었던 두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해보니,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드민턴 레전드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이 시간이 앞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두 자매는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현성 대학생 명예기자 gustjd9716@naver.com

배드민턴 크리에이터 '배달이'를 아시나요?

스팁어택 챌린지 참여 유명 유튜버
"다양한 콘텐츠로 배드민턴 알릴 것"

지난 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레전드들이 모인 2018 레전드 비전 월드 투어에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배드민턴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은 '스팁어택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스팁어택 챌린지'는 5명의 참가자들이 행사 주최사인 요넥스 브랜드의 라켓으로 스매싱을 뽐내는 행사였다. 행사 한 달 전, SNS로 본인의 스매시 영상을 올린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SNS로 자신의 스매싱 실력을 뽐내는 동영상을 올렸고, 주최 측은 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했다. 5명 중 배드민턴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바로 라인저지 및 유튜버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튜버 배달이(본명 박병현)씨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배달이' 박병현(31)씨는 배드민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라인저지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배드민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박씨는 이날 '스팁어택 챌린지'에 참여해 4명의 배드민턴 팬들과 함께 스매싱 실력을 겨뤘다. 셔틀콕이 네트에 걸리거나 점수판 밖으로 나가는 등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며 3위라는 아쉬운 성적에 그쳤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박병현 씨

박병현씨는 "선수들 외에도 일반인들 또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청했다"며 참가계기를 언급했다. 이어 "레전드비전 투어의 경우 동호인과 팬들은 보통 관람하는 입장이었는데, 많은 관중들 앞에서 선수들처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배드민턴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스팁어택 챌린지처럼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많아져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배드민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배드민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배드민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박병현씨는 이날도 레전드비전 월드투어의 구석구석을 콘텐츠로 담아냈다. 박씨는 "축구로 유명한 감스트처럼 기회가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로 배드민턴의 인기를 알릴 예정"이라며 팬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태형 대학생 명예기자 nadakth1@naver.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3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18	15	3	0.833	0	7승
2	KT	18	12	6	0.667	3	5승
3	전자랜드	18	11	7	0.611	4	2승
4	LG	18	10	8	0.556	5	2패
5	인삼공사	18	9	9	0.500	6	5패
6	SK	18	8	10	0.444	7	5패
6	KCC	18	8	10	0.444	7	2패
8	DB	18	7	11	0.389	8	2승
9	오리온	18	6	12	0.333	9	2승
10	삼성	18	4	14	0.222	11	7패

여자농구 〈2일〉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9	9	0	1.000	0	9승
2	KB스타즈	9	7	2	0.778	2	1승
3	삼성생명	8	3	5	0.375	5.5	2패
4	OK저축은행	8	3	5	0.375	5.5	1승
5	KEB하나	9	3	6	0.333	6	1패
6	신한은행	9	1	8	0.111	8	6패

프로배구 〈3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GS칼텍스	11	8	3	23	949	880	1패
2	흥국생명	11	7	4	21	931	899	2승
3	IBK기업은행	10	6	4	18	900	852	1패
4	도로공사	11	6	5	17	968	983	1승
5	인삼공사	10	5	5	16	862	837	1승
6	현대건설	11	0	11	1	746	905	11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어나이	IBK기업은행	303	①	양효진	현대건설	0.78
②	톰시아	흥국생명	264	②	한수지	인삼공사	0.70
③	박정아	도로공사	256	③	김세영	흥국생명	0.68
④	알레나	인삼공사	220	④	김희진	IBK기업은행	0.60
⑤	이재영	흥국생명	200	⑤	정대영	도로공사	0.60

NFL 〈3일〉

•경기결과

볼티모어	26-16	애틀랜타	
애리조나	20-17	그린베이	
탬파베이	24-17	캐롤라이나	
테네시	26-22	뉴욕J	
시애틀	43-16	샌프란시스코	
LAR	30-16	디트로이트	
뉴욕G	30-27 〈연장〉	시카고	
덴버	24-10	신시내티	
마이애미	21-17	버펄로	
잭슨빌	6-0	인디애나폴리스	
캔자스시티	40-33	오클랜드	
LAC	33-30	피츠버그	
휴스턴	29-13	클리블랜드	
뉴잉글랜드	24-10	미네소타	

해외축구 〈3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맨체스터시티	14	38	12	0	2
2	리버풀	14	36	11	0	3
3	첼시	14	31	9	1	4
4	아스널	14	30	9	2	3
5	토트넘	14	30	10	4	0
6	에버턴	14	22	6	4	4
7	맨체스터Utd.	14	22	6	4	4
8	레스터시티	14	21	6	5	3
9	본머스	14	20	6	6	2
10	왓포드	14	20	6	6	2
11	브라이튼	14	18	5	6	3
12	울버햄튼	14	16	4	6	4
13	웨스트햄	14	15	4	7	3
14	크리스탈팰리스	14	12	3	8	3
15	뉴캐슬	14	12	3	8	3
16	카디프시티	14	11	3	9	2
17	허더스필드	14	10	2	8	4
18	사우스햄튼	14	9	1	7	6
19	번리	14	9	2	9	3
20	풀럼	14	8	2	10	2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아우바메양	아스널	10
②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8
②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8
②	케인	토트넘	8
⑤	머레이	브라이튼	7
⑤	미트로비치	풀럼	7
⑤	살라	리버풀	7
⑤	아자르	첼시	7
⑤	윌슨	본머스	7
⑩	라차제트	아스널	6
⑩	마네	리버풀	6
⑩	마샬	맨체스터Utd.	6
⑩	시구르손	에버턴	6
⑩	히샬리송	에버턴	6
⑮	루카쿠	맨체스터Utd.	5
⑮	모라타	첼시	5
⑮	바디	레스터시티	5
⑮	새인	맨체스터시티	5
⑮	쉬얼레	풀럼	5
⑮	실바	맨체스터시티	5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아스널	4 - 2	토트넘
리버풀	1 - 0	에버턴
첼시	2 - 0	풀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볼프스부르크	2 - 1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2 - 0	묀헨글라트바흐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알라베스	1 - 1	세비야
베티스	1 - 0	레알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2 - 0	비야레알
지로나	1 - 1	AT마드리드

아마추어 경기결과 〈3일〉

농구 ●2018-2019 KBL D리그 1차(경희대)
•현대모비스(2승3패) 78-57 DB(3승2패), KCC(3승2패) 70-69 SK(5패)

탁구 ●2018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호주 벤디고)
•여자 단체전 예선전 2조=한국 3-0 브라질

경기 예고

프로배구 〈4일〉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현대캐피탈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4일〉

농구 ●2018-2019 KBL D리그 1차(경희대)
•DB-SK(오후1시30분), 상무-KCC(오후3시30분)

테니스 ●제 6회 아인컵 양구 실내 주니어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복싱 ●2018 전국 종별 신인 복싱 선수권대회(청양군민체육관, 오후3시)

레슬링 ●2019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및 제12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오전10시)